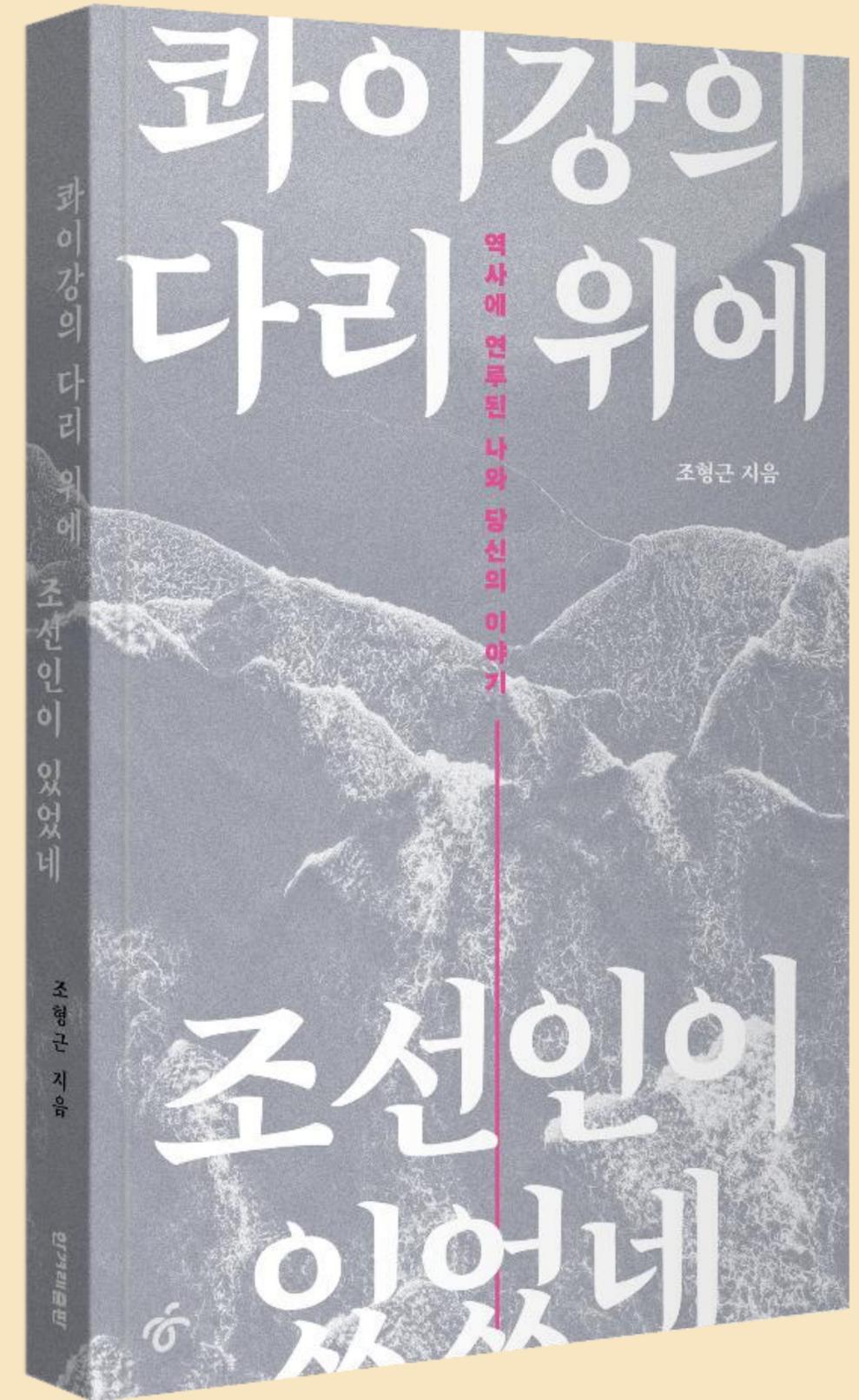


2025.01.23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
센터

역사적 책임과 연루됨의 윤리

조형근 (동네 사회학자)



어쩌다 이런 책을 쓰게 됐을까?

ISSUE IN 조형근의 '역사의 뒤 페이지'

기억함으로써 잊어버리는 것들

두 개의 <너의 이름은>은 다른 이야기다. 하지만 책임이 있는 인간의 비극을 자연재해로 묘사하는 것, 직면해야 할 정치사회적 문제를 선한 개인 간의 연결이라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건 같다.

조형근 (동네 사회학자)

※영와 <너의 이름은>의 스토일리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본 청소년 두 명이 있다. 17세 소녀 '미츠하'는 깊은 산골 이토모리에서 사는 신관 집안의 무녀다. 다음 생애는 산골 말고 화려한 도쿄의 남자로 살고 싶다. 또 다른 소년 '타키'는 바로 그 도쿄에서 고

교 시절을 만끽 중이다. 어느 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 둘의 몸이 바뀐 것이다. 불규칙하게, 자는 동안 몸이 바뀐다. 처음에는 실수를 연발하다가 상황을 깨닫는다. 서로의 생활을 위해 규칙들을 정하고, 몸이 바뀐 날 생긴 일을 스마트폰에 남겨 준다. 이 이상한 현상을 극복하자며 협력도 약속한다. 몸이 바뀐 다른 성별의 청소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한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2016)의 한 장면.



50

년 둘이 벌이는 티격태격 에피소드들이 재미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君の名は, 2016)의 도입부 이야기다.

소소한 일상을 이어가던 영화는 갑자기 거대한 비극으로 반전한다. 어느 날 타키는 스마트폰에서 오늘 밤 해성이 지나 갈 거라는 미츠하의 메시지를 본다. 궁금 중에 미츠하에게 전화를 걸지만 연결되지 않고, 이제 둘의 몸도 바뀌지 않는다. 타키는 이토모리를 찾아 나서지만 겨우 찾아낸 그곳에는 거대한 호수만 있다. 3년 전 해성 파편 직격으로 주민 500여 명이 죽은 대재난의 현장이다. 타키는 희생자 명부에서 미츠하의 이름을 발견한다. 그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2016년의 타키가 살아 있던 2013년의 미츠하와 연결되었고, 미츠하가 전화를 받지 않은 날이 바로 이토모리에 해성이 떨어진 날이었던 것이다!

질망한 타키는 기억을 더듬으며 산으로 올라간다. 거기서 미츠하가 만든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다가 황혼 무렵 둘이 다시 이어진다. 타키를 통해 해성의 추락을 알게 된 미츠하는 그날로 돌아가 해성이 떨어진다면 사람들을 데피시키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 천신만고 끝에 성공해서 결국 재난을 막는다.

다시 시간이 흘러 2023년, 둘은 서로에 대한 기억을 잃은 채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출근길 엿갈리는 전철을 탄 둘의 눈이 마주친다. 타키가 먼저 내리고 미츠하도 다음 역에서 내린다. 무작정 뛰어가 다 어느 계단에서 마주친 둘, 천천히 서로를 향해 걷는다. 그 사람일까, 머뭇머뭇 지나치는데 타키가 돌아서며 외친다. "나, 너를 어딘가에서..." 돌아선 미츠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나도!" 타키도 눈물을 흘린다. 둘이 동시에 말한다. "너의... 이름은...?" 화면이 푸른 하늘을 비추고 주제가 흐르면서 막이 내린다.

시사IN 2024.4.2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미야기현에 부서진 집과 배 잔해가 쌓여 있었다.

영화는 공전의 성공을 거뒀다. 202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일본 애니메이션이 됐다. 아름답고 찬란한 영상미, 심장을 울리는 가사와 멜로디의 삼입극들도 흥행에 큰 역할을 했다. 열면 흥의 중심에는 공감을 자아낸 서사와 결실한 주제 의식이 있다. 재난에 던져진 인간들이 필사의 노력으로 재난을 극복하고, 우여곡절 끝에 사랑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 미츠하와 할머니를 이어주는 매듭 끈 '무스비(結ひ)'는 미츠하와 타키를 이어주는 인연의 끈이기도 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연결의 끈이기도 하다. 영화는 재난 속에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감각을 일깨웠다.

물론 재난과 사랑을 연결하는 영화는 흔하다. <너의 이름은>이 달랐던 건 영화가 3·11 참사에 대한 은유이자 애도로 읽혔기 때문이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을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 폭발사고로 1만8000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됐고, 6000명 이상이 다쳤다. 쓰나미가 마을을 덮치고 원전이 폭발하는 모습이 실시간 중계될 때의 충격은 초현실적이었다. 희생자를 구하고 이재민을 도우려는 자원봉사자들이 일본 전역과 세계로부터 도착했다.

<너의 이름은>과 세월호-이태원 참사

그리고 현실의 시간이 시작됐다. 관료들은 매뉴얼에 얽매며 지원을 거부하고, 사고의 주범 도쿄전력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일본 정부는 무능했다. 원전 체제는 별 탈 없이 부활했고, 책임자들에게 형사처벌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들을 따돌리는 이치에 현상이 일어나 충격을 던지기도 했다. 오직 개인들의 자발적이고 작은 노력만 돌보았다. 영화는 이 파렴치한 세상에서 힘 약한 개인들이 서로 돕고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그 키워드가 바로 '너의 이름'이고 '무스비'였다. 너의 이

시사IN 2024.4.2

ISSUE IN

- 대중 교양서로 기획

- 가능한 한 대중가요, 영화, 소설 등 대중문화의 산물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독자의 정서적 공감과 상상력의 확장을 얻으려고 시도
- 한국의 대중 교양서 시장은 과연 어떤 상황일까?

51

시사IN “조형근의 역사의 뒤 페이지”

연재

(2023.05 ~ 2024.08)

어쩌다 '연루됨'을 키워드로 삼게 됐을까? I

◆ 연결 - 우리는 단지 개인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

야마무로 신이치의 연쇄 시점

모든 현상을 역사적 총체와의 연관 속에서 파악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부분적이고 사소하게 생각되는 현상이 구조적 전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규정해갔는지를 생각하기 위한 방법적 시좌. **사람과 사람이 얽히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만남이나 사건 속에 생각지도 못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모든 경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가기 위해 역사를 배운다.

어쩌다 ‘연루됨’을 키워드로 삼게 됐을까? II

◆ 연루 - 후세대가 역사와 결부되는 방식

테사 모리스-스즈키의 연루(implication)

역사적 사건의 장본인, 동시대인이 지게 되는 ‘역사적 책임’과 후세대인이 지게 되는 ‘역사적 책임’이 같을 수는 없다. 후세대인이 역사와 결부되는 방식은 역사가 남긴 간접적인 혜택들과, 역사의 산물인 구조와 제도, 개념들과 맺는 관계. “침략 행위를 일으켰다는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행위 덕분에 현재의 우리가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연루’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로 타인에게 책임을 느끼게 될까?

◆ 보편적 인도주의 (임마누엘 칸트)

우리는 지구 반대편 낯선 인간의 고통에도 함께 슬퍼할 수 있다

◆ 현존의 인류학 (제임스 퍼거슨)

우리는 같은 공동체의 성원 자격이 없어도 바로 옆에 있는 현존하는 이들(이른테면 미등록 체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한다

◆ 이야기를 공유하는 공동체 (알레스데어 매킨타이어)

우리는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윤리적 의무감을 공유하게 된다 ->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선 이들과 책임감을 공유하려면 서로 이야기가 섞이지 않으면 안 된다.

-> 국민국가의 역사를 넘어선 역사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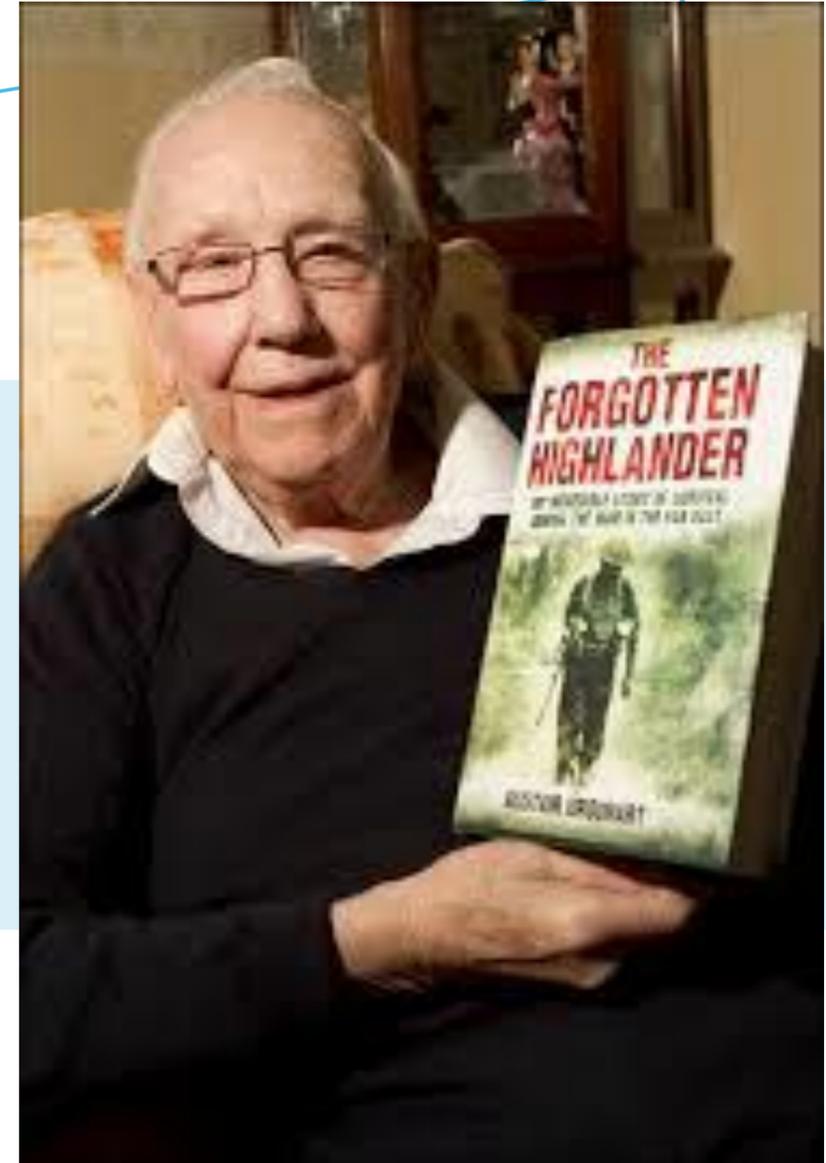
포로들 - 영화와 실제



우리는 <보기 대령 행진곡>을 부르지 않았다...

영화에서 우리가 겪은 고통은 매우 위생적으로 묘사됐다. 영화에서 잘 먹고 지내는 엑스트라들과 달리 우리는 휘파람으로 <보기 대령 행진곡>을 부르지 않았다. ... 제복 같은 것도 입지 않았다. 우리는 벌거벗은 맨발의 노예였다. ... 가능한 한 적게 일하다가 가학적인 구타를 당한 것은 나만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아껴 써야 했다. 굶주린 배급량으로 배짱을 부리는 건 절대적인 자살 행위였다. 우리는 존엄성을 잃은 지 오래였고, 더 빨리 일한다고 해서 존엄성을 되찾을 수도 없었다.

알리스터 어쿼트, <The Forgotten Highlander>





부산의 군속교육대
노구치부대의 교육생
들
1943년 7월

가해와 피해, 그 중첩된 운명

일본제국 A급전범 중 사형당한 자는 도조 히데키 총리 등 7명
B, C급 전범으로 사형당한 조선인은 23명, 그 중 군속 포로감시원이 14명

“수용소가 소문으로 가득 찼던 종전 무렵, 시대의 바람이 바뀌는 낱새를 채고서 배신할 마음을 품은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굽실거리며 화해를 시작했고, 심지어 일본인들이 자신을 탄압했다며 징징대고 있었다.”

로렌스 반 데르 포스트, <씨앗과 파종자(The Seed and the Sower)>

일본제국주의와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져야 할 우리 몫의 책임은 어떤 것일까?

희망은 있더라도 한 걸까?

1944년 10월 7일, 태국 포로수용소에 근무하던 김주석은 영국군 장교, 사병 포로를 동반하고 탈출, 중국으로 향하다 체포. 이듬해 사형

1944년 12월 말, 인도네시아의 조선인 군속 26명이 고려독립청년당 결성. 이듬해 1월 4일 3명이 봉기, 15명의 일본군 살상 후 3명이 자결. 나머지 인원 체포 후 재판 중 종전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희망

훨씬 사소한 이야기도 있다. 영국인 포로 어퀴트는 회고록에서 짐작처럼 열차에 갇혀 질식할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이송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경험인지 떠올린다. 그렇게 또 이송되던 어느 날, 포로들이 조선인 포로감시원에게 제발 문을 닫지 말아달라고, 탈출하지 않겠다고, 도착하면 문을 닫겠다고 애원한다. 놀랍게도 그는 문을 닫지 않았다. “우리가 움직일 때 쾌적한 바람이 불었다 ... 나는 감시원이 문을 열어두는 걸 허락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고, 감시원 중 한 명에게 받은 첫 번째 친절과 동정심을 잊을 수 없었다.”

아무도 탈출하지 않았다. 탈출은커녕 도착하자마자 문을 닫음으로써 호의를 베푼 조선인 포로감시원이 의심받지 않도록 보답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작은 호의를 베푼 이들이 있었다. 참담한 비극 앞에 이토록 작은 호의가 도무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묻게도 된다. 다만 어퀴트가 기억하고 기록에 남겼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됐다. 희망은 어쩌면 여기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어본다.



1934년 평북 후창군 산골에 살던 15세 소녀 이추희

1939년 인천 애관 옆에 살던 15세 소녀 유윤순



고맙습니
다

식민지의 소란, 대중의 반란

: 여섯 개의 테마로 본 역사 속 대중 정치의 동학 [산처럼, 2024]

저자: 기유정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I.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 이 책은 식민 공간(주로 1920년 전후한 시기-1930년대 중반까지)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소요 사건들을 사례로 하여 “다수자”의 정치란 무엇이며 그 행위 동학은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려고 시도한 것임.

▶ 정치 주체로서 “다수자”를 가리키는 용어로는 대중, 민중, 군중, 민족 등이 있음. 여기서 상대적으로 계급적이거나 인종적 의미부여가 강한 민중이나 민족과 비교했을 때, 행위 주체의 숫적인 의미를 보다 강하게 드러내는 것은 대중 혹은 군중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서 사용하는 대중이라는 용어는 사실 군중으로 대체해도 크게 무리는 없음]

▶ 정치학에서 “정치”를 정의할 때 흔히 행정으로서 정치(인풋 아웃풋의 피드백 정치. 거버먼트로서 정치)와 전쟁으로서 정치가 구분됨. 정치 주체를 기본적으로 개인(혹은 그 개인의 집단화)에 두고, 이익의 다툼을 중재하고 그 타협을 끌어내는 행위로 정치를 접근하는 논리가 한편에 있음. 다른 한편에 개인 이전에 공동체(우리)가 있고, 이 공동체의 실존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투쟁이 정치를 보다 본질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라는 논리가 있음. 여기서 후자의 정치는 이익보다 가치. 개인보다 공동체. 갈등보다 적대에 기본해 정치를 설명함. 이 적대의 정치에서 정치적 대립은 결코 다원적일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는 두 방향으로 나뉘어지게 된다고 봄.

▶ 이 연구는 식민 공간에서 다수자가 운집해 만들어낸 많은 자생적 소란들이 행정으로서의 정치 보다는 전쟁으로서 정치에 의해 잘 설명된다고 접근하고 있음. 전쟁으로서 정치를 전제로 했을 때, 식민지 대중의 소란은 많은 부분 “정치”라고 의미화될 수 있음. 그렇다면 이 대중 정치의 근본 논리는 무엇일까? 개인들은 어떻게 대중이 되어 실존을 건 투쟁을 하다 또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는가?(전선도, 대중도)

▶ 시기적 의의

3.1운동을 전후로 다수자의 폭동이 제국(조선뿐만 아니라 일본 안에서도) 전체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이들을 설명하기 위한 엘리트 계층의 시도 또한 활발해짐. 한국사에서 근대적 대중이 식민지라는 구조적 지반 하에서 본격 구성된 시기임. 이 시기 대중 정치의 양상이 이후 한국 정치의 양상에 중요한 기틀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방법론(글쓰기)적 접근의 고민

사건이 연구의 주가 되어야 함(사건 자체의 생동감을 최대한 드러내기)

사건이 포함하고 있는 철학적 요소들이 사건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기

II. 당대의 시선

1. 다수자와 공포

▶ 3.1운동 직후 재조일본인 사회가 느끼던 “소수자” 의식과 그 “공포” 의 존재. 이 공포에 대응해 수에 대한 수적 대결을 시도하던 재조일본인 사회 vs “데모크라시의 시대”라는 시대 사조의 한 흐름 위에서 이에 유연한 대응을 -일본인 민간 사회에- 요구하던 식민 정부 사이의 갈등. 이 갈등의 배경에 조선을 포함한 제국 전체. 세계사적 정치 흐름에서 “다수자” 즉 “대중”이 정치 주체로 부상하던 상황의 존재.

2. 식자층의 접근 방법

▶ 조선 지식인 사회 역시 이 다수자라는 정치 주체의 부상에 맞춰 이를 크게 다음의 3접근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함. 계급적 다수자(무산 대중. 민중), 민족적 다수자(민족), 일탈적 다수자(군중). 이 세 접근은 모두 어떤 것의 결여로서 다수자를 접근함. 경제 혹은 민족간 지배 피지배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의식의 결여(무산 대중과 민족) 혹은 합리적 이성의 결여(군중)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있음. 따라서 의미있는 다수자의 행위란 이 결여의 극복 후에 가능해진다는 접근이 이 전제에서 도출됨. 계급적이고 민족적으로 각성한 다수자. 혹은 합리적인 다수자의 조직적 행위가 정치라고 보는 인식틀임.

▶ 다수자 즉 대중 행위를 유의미하게 보기 위해서 이들이 자기 존재의 추상적 본질(존재의 속성)을 인식해야만 가능하다는 전통적 접근은 식민 공간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대중의 소란을 무질서한 폭동으로 쉽게 평가절하 하기 쉬움.

▶ 그렇다면 이 같은 기성의 접근을 넘어서 “사건으로서 대중”을 설명할 방법은 무엇인가?

III. 마주침

1. 구조적 필연성 vs 경험적 우발성

▶ 연구 사례> 1921년 4월 24일. 경성 황금정 공동 수통 앞 대중 소란 [책 55-58]

1920년 4월 17일. 부산 정거장 앞 대로변 발총 소란[책 51-53]

▶ 대중이 정치 사회적으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는 우발적 “사건”을 통해서임. 따라서 “사건” 안에서 하나의 무리가 된 대중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대중 행위를 새롭게 의미화하는데 있어 관건이 됨.

▶ 기성 접근: 경험적 사건의 존재. 사건 이면의 구조적 원인의 존재. 후자에 의해 전자가 발현된 것이라는 접근 논리. 우발을 필연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는 접근.

▶ 기성 접근의 한계: 사건이 구조의 자동기계적 발현(때가 되어 나타난 필연적 결과물)로 접근됨. 사건 자체의 자기 “힘”은 이야기할 수 없게 됨.

▶ 사건을 발생시키는 사건 자체 내부의 “힘”이란? 우발성. 행위자들 간의 우발적 마주침의 생성물 사건임- 준고착적 상태.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어떤 준 안정적 상태가 사건임. 이와 관련한 철학적 작업은 이미 오래 전에 무수하게 이뤄짐. 그러나 실재 사건과 역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우발성의 철학과의 학문적 소통은 많이 부족했음.

▶ A) 1920년대 초 식민 공간에서 일어난 많은 소란들은 대부분 특정 상황에서 행위자들 간의 우발적인 마주침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B) 사건 자체의 표상적 이미지=반일 대중

폭동. 즉 민족의식에 의한 저항으로서 반란.

▶ B)와 같이 볼 경우의 문제. 미리 예비된 반일 감정이 특정 계기에 폭발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임. 일상의 현실이 중첩되고 모순된 의식과 감정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역사 설명에서 살려내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킴. 즉, 현실 속 대중이 반일과 친일의 경계에서 일상을 영위하다 우연히 특정 상황과 마주쳐 일어난 결과임을 무시하게 됨. 식민 지배 문화(장춘단 꽃놀이 혹은 야시)를 즐기다 일본인을 두들겨팼 대중이 경찰서 유리창을 파괴하게 되기 까지 한 (사실상) 모순을 드러내지 못하게 됨. 상호 충돌하는 의식 즉, 현실 추수적이거나 반역적 의식의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발현이 되어 나타날지는 미리 예정된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마주침” 하에서 “우발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모든 구조적 분석은 사후적이고 과잉 인과론적인 오류의 여지를 가질 수 있음.

2. 마주침의 특징- “반복”, “변이”, “순간성”

▶사건을 행위자들 간의 상호 촉발 즉, 마주침의 생성물이라고 봤을 때, 사건 안에서 일어나는 특정 행위자의 다른 행위자에 대한 촉발은 또 다른 촉발을 연쇄적으로 일으킨다. 이 연쇄성의 많은 부분은 동일한 사건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반복이 계속될 때, 즉, 어느 임계점을 넘어설 때, 초반 사건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이된다.

▶사례> 1926년 남대문 파출소 습격 사건. 책. 59-63쪽. 수명의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싸움-> 경찰의 방적 편들기가 반복-> 조선인들의 반복적 대응 과정에서 그 수가 커짐-> 조선인과 일본인 간 사적 싸움에서 조선인 대 식민 당국 간의 싸움으로 변이 ->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됨.

3. 마주침의 의미=역설

▶ 마주침의 순간성(존재와 비존재의 공존)은 사건과 사건 속 대중의 비논리성(부조리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임. 그럼 사건 속 대중 행위의 비논리성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 기성 논리- 사건의 누적과 확산을 통해 정체된(established) 결과물 즉, 정책이나 제도적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보통 “무의미”로 처리된다. 혹은 “의미”(사회구조적 함의)와 “무의미”(해프닝)가 공존할 때, 주로 둘 중 어느 하나를 취사선택해 의미를 균질화시킴.

▶ 1918년 종로미곡염매소 사건/ 1924년 우미관 앞 취객 사건

한편에서 식민경찰에 대한 민족의식적 저항을 보여준 사건. 그러나 시위의 발생 원인은 대중의 철저한 ‘오인’에 따른 것이기도 했음. 양자 모두가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음. 즉, 서로 충돌하는 두 논리의 공존. 조리가 아닌 부조리가 사건, 그리고 사건 속 대중 정치의 핵심일 수 있음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

▶ 부조리한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동인- 경험과 감성.

대중의 결집에서 인식(논리적 추론)보다 경험(시각적 자극과 감성)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함 (1920년 밀양 경찰서 습격사건)

4. 마주침은 교잡交雜(혼종성)이다.

▶전혀 다른 계열의 행위 흐름들 간의 마주침.

▶정치적 대중과 일상적 대중 간의 마주침은 전혀 예기치 못한 새로운 사건을 창조해냄. 또한 양 측 대중의 계열에 상호 영향을 미침. 1925년 4월 전조선민중대회 사건/ 1932년 5월 논산군 양촌면 노동자시위.

IV. 모방.

1. 식민 당국의 조선인 대중 소요를 향한 시선

▶ 조선인들의 "구경꾼 심리"가 소란을 일으킨다. 따라서 군중 즉 대중은 주체적 의식을 결여한 모방의 결과임. 남이 본 것을 나도 보고 싶어하는 구경꾼 심리이기 때문에 이 소란은 무의미하며, 이 대중 역시 무의미함.

▶ 구경꾼 다시 보기.

구경꾼이란 남이 보는 것을 나도 보고 싶어하는 모방의 욕망임. 모방은 일종의 행위의 반복이자 정보의 반복적 전달임. 이 전달 과정에서 행위자의 수적 증식이 일어난다는 것이 중요함. 이 반복적 전달 과정에서 서로 다른 개별자들이 궁극적으로 양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수가 됨. 숫자되기. 모방 없이 대중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2. 모방의 효과

▶ 공포: 권력자를 소수자가 되게 만들.

▶ 변이: 수의 증폭 과정에서 평범한 구경꾼들이 권력의 대항자가 됨.

▶ 모방이란?

□ 단순한 주체성의 상실을 넘어서 운동하는 사회, 흐름으로서 사회를 만드는 미시 동학의 핵심임. 흐름 즉 트렌드로서 사회를 보는 관점은 구조나 제도 법으로서 사회를 보는 것과는 다른 관점임. 제도나 법은 모방을 통해 형성된 흐름이 계속 바뀌어 다른 흐름. 즉 트렌드와 시장을 창조하며 바뀌는 것을 하나의 질서로 고착시키는 역할을 함.

□ 사회 구조가 주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의 미시적 상호 모방이 사회(트렌드)를 만든다.

□ 모방은 욕망에 기초함. 남이 본 것을 나도 하는 것(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듣는 것)은 나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어느 순간 시들해질 때, 어느 순간 그 반복과 모방은 사라지게 됨. 또 다른 흐름을 모방하는 식으로 변이. 사회의 구조(트렌드)가 바뀌게 됨. 사회 구조를 법이나 제도와 같은 정태적 틀이 아니라, 행위자들의 운동과 욕망 간의 마주침에 의해 설명하는 방식.

3. 공간의 중요성.

▶ 수적 증식. 개별자들의 숫자 되기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 길거리. 광장. 장터. 음식점 앞.

▶ 길거리의 대중 소란. 대표적 예> 1920년 8월, 콜레사 소요.

▶ 장터의 대중 소란. 예> 1930년 12월. 진주군 대곡면 파출소 투척 사건.

V. 적대.

▶ 대중의 소란은 항상 이항적으로 배치의 경향을 보임.

▶ 적대는 실존의 싸움. 동지(아)와 적(타) 간의 극단적 증오를 전제로 한 대립.

▶ 적대는 대립을 공고히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수를 증식 결집시키는데 결정적 역할.

▶ 식민지 대중의 적대. 식민자 대 피식민자. BUT. 피식민지민 대 피식민지민도 매우 중요.

▶ 적대를 보는 기성 논리. 사회 구조의 파생 결과로 접근. BUT 적대의 현실화에 사건이 갖는 중요성.

▶ 적대의 사건성= 우발성. 주체성. 실천. 주관. 신체어.

1. 반형평사 소요 발생 과정.

▶ 백정과 양민 사이에 적대적 의식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의식 자체가 일상에서 적대의 현실화(소란)를 조직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는 흔치 않음.

▶ 오히려 대중 운집이 가능한 일상의 공간들에서의 의도치 않은 마주침이 쌍방간 자극(상호촉발)을 촉발하고, 이것이 반복되어 양측의 수적 증가를 만들어 적대가 현실화되는 경우가 다수였음. [사례. 130-131쪽]

2. 주체의 실천: 우발성+ 주체성

▶ 우발성은 주체의 의도와 상관없는 외부의 촉발임.

▶ 그러나 이 자극은 주체의 실존적 선택을 필연적으로 요구함. 주체의 결단.

이 선택(결단)이 결국 사회 안에 누적되어 있는 적대의 구조를 현실의 경험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1926년 이리 장터에서 양민 정인태와 형평사원 박성녀의 선택)

3. 주관: 적대는 보편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 언론. 운동가들- 백정과 양민 간의 계급 민족적 동질성 강조.

▶ 보편 토대의 관점으로 대중을 접근하는 방식.

□ 백정과 양민 사이에 통용되지 않았음.

□ '적대'의 경험적 확인- 모멸감(양민과 백정 양측)

모멸감은 이념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적인 주관적 판단임.

형평사의 특정 강령이 모멸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4. 신체어

관념성을 부대한 문자어 보다는 신체어(눈빛, 어투, 행동 방식)가 대중 적대의 현실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었음. (둘 사이의 차이. 표4)

VI. 열광

▶ 전쟁으로서 적대를 현실화시키고 공고(확장)시키는 것에 대중의 감성(기쁨/슬픔)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 적대는 슬픔이기만 했을까? 아니면 오히려 기쁨이었을까? 이 문제를 민속학적 사례(석전과 삭전)를 통해 살펴봄.

1. 석전과 삭전의 공통점.

▶ 양편으로의 단순 구분. 섬세한 기술이나 규칙의 부재. 관객과 선수 간의 구분 없음. 삭전이 석전이 되는 경우들 다수 발생. 석전처럼 삭전도 식민당국과 허용을 둘러싸고 긴장감 지속적으로 존재.

▶ 삭전은 청년회 유지 등 주도(대표) 집단이나 심판(지역 경찰, 군수 등)이 존재함. 그러나 심판 등의 중재권력(싸우는 양편의 힘 관계를 넘어선 제3의 힘)이 의미없는 경우들 다수 발생.

2. 삭전의 쾌감

▶ 강도되기

□ 개체성의 해체: 사회적으로 구획된 개별자들.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따른 위계적 구획. 이 위계적 구획 하의 혼육된 사회 주체들. 다수가 밀집해 하나의 힘(강도)이 됨.

□ 형식적 동일성: 이항적 주체가 서로에 대해 갖는 형식적 평등(우적의 평등)/ 같은 측안에서의 내적 평등.

▶ 전사되기

□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원인

경찰과의 간 충돌은 대부분 삭전 시작 전이 아니라, 시작 중에 이들 삭전 대중을 강제 해산 시키려했을 때 벌어지는 경우가 다수였음.

놀이 과정에서 싸움의 쾌감이 현실로 전이되는 경우로 접근 가능.

삭전 혹은 석전은 놀이 싸움임. 석전은 실제 전쟁 연습에서 유래. 싸움 과정에서 삭전 속 대중은 전사의 무리. 통제되고 혼육된 군인이 아니라, 힘을 발휘하는 전사.

VII. 애도.

▶ 대중 구성에 기쁨 만큼 슬픔이 중요한 역할을 함. 특히 다수에게 알려진 이의 생물학적 죽음 혹은 어떤 정신적 상실감(슬픔)을 치유하려는 대응 행위로서 애도 존재. 애도 과정에 개별자들의 대중으로의 전환이 있음.

▶ 슬픔은 어떻게 각기 다른 개인들을 하나의 대중으로 만드는가? 애도 대중은 어떤 정치 사회적 효과를 내는가?

▶ 사례. 왕의 죽음에 대한 애도(순종의 죽음)/ 동포의 수난에 대한 애도(재만동포옹호운동)

1. 순종 죽음 당시 대중적 망곡 열기.

▶ 전통적 왕의 죽음을 향한 근대적 대중의 애도. 유교적 정상 주체에서 벗어난 이들이 망곡 행렬의 열기를 가장 전면에서 행하던 이들로 언론에 장식됨. 여성(부녀. 기생. 여학생), 장애인. 노동자. 어린이. 상인들의 애도.

▶ 애도열의 동인(당시 언론 보도를 통한 간접적 접근)

A. 순종 개인에 대한 연민

B. 민족적 항거 의식의 발현

C. 슬픔 자체에 대한 적극적이고 집단적인 열광(“감상주의” 비난) - 206-7쪽.

▶ 연민이나 민족의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

흰옷 입기 열풍/ 전국적(만주 및 해외) 망곡열기/ 신체적 자해들의 사례들.

->개별적으로 사적 공간에서 애도하지 않았음.

->같은 공간에 같은 옷을 입고 뻣뻣하게 밀집한 상태의 애도

▶ 삭전의 쾌감과 동일한 논리가 작용했을 가능성.

어쩔 수 없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 자체가 주는 희열을 적극적으로 욕망한 상태

▶ 슬픔에 대한 욕망과 그 효과

“감상주의”로만 비난하기 어려움. 사회의 한 흐름(물가 동향. 일상의 행태. 보편 정서를 완전히 바꾸는 힘)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대중 애도.

2. 애도와 적대.

애도를 방해하거나(식민당국)/ 애도에 함께 하지 않는 무리(일본인/조선인)에 대한 적대. 대중의 애도에는 적대가 수반되는 경우가 다수임. 적대가 수반될 때 애도는 정치적 싸움이 됨.

3. 애도와 적대의 논리

- ▶ 재만동포옹호운동 속 대중(1920-31).
- ▶ 기존의 접근 논리(대중 민족주의/ 민족주의 세력의 선동) - 이념에 주목.
- ▶ 감성. 즉 정동(affect- 물질적. 관계적 힘으로서 정서. 감정)의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
- ▶ 재만동포옹호 운동 속 대중의 기부 모금 행렬- 슬픔(멜랑콜리)과 증오(적대)가 동시에 작동하며 서로를 강화시키고 있었음.

VIII. 폭력

- ▶ 대중 폭력을 구성하는 내적 논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 ▶ 사례. 1931년 조선인 배화폭동. 약칭. 만보산 사건. “배화 사건 재판 기록”(국편)
- ▶ 기존 접근- 구조적 배경. 선동세력. 폭도의 계급적 조건 중심 분석.
- ▶ 행위 내부의 논리에 대한 설명 필요.

1. 대중 폭력의 내부 논리

- ▶ 공명- 자발성. 초논리성. 즉각적 동시적 소통에 주목해야 함.
- ▶ 도덕- 하층 노동자 계급의 정치 사회적 결핍에 주목하는 방식의 한계. 이들 스스로 참여 동기라고 했던 주장의 의미를 부정(혹은 평가절하)하게 됨. 대의를 위한 폭력이라는 도덕론이 대중 폭력의 주요 근거임을 무시하게 됨.(사적 이익을 의도하지 않은 점)
- ▶ 초법적 결단- “우리”를 지키기 위해 “적”을 처단하는 결단은 법에 우선한다.
- ▶ 직접 행동- 反代議. 직접민주주의. (식민 공간에서 흔하게 나타나던 현상. 교통사고 등) 민주주의와 대중 폭력의 밀접한 상관성을 보여주는 사례.

2. 대중 폭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 ▶ 일반적 기존 논리: 도덕적 비판(비폭력주의)/ 다원주의적 비판(대중의 이항 정치 비판).
 - ▶ 적대의 사회적 편재와 적대 구도의 변이.
- 거시 역사적 관점에서 대중 정치에서 우/적의 전선은 불변 but 전선의 성격은 계속 바뀜. 기성 전선의 소멸과 새로운 전선의 탄생. 이 같은 새로운 전선을 생산하는 것이 대중 정치의 힘이라고 볼 수도 있음.

<식민지의 소란, 대중의 반란> 토론문
2025.1.23. 김 원(한국학중앙연구원)

<식민지의 소란, 대중의 반란>은 1920년대 신문 기사를 주요 자료로 삼아, 기존 식민지 연구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대중이 일으킨 반란, 범죄, 폭동 등 집합행동 등의 ‘사건’을 다뤘다. 특히 사건의 배경이나 원인보다는, 사건 안에 대중이 일궈낸 집합행동의 내적인 논리를 모방, 적대, 열광, 애도, 폭력이란 6개의 키워드를 통해 다뤘다.

토론에서는 책에서 다루진 내용 가운데 냉전 시대 서발턴의 사건을 다뤘었던 토론자의 입장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질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은 책 앞부분의 대중의 분류방식이다. 찰라적으로 등장하는 정치적 대중, 문화적 대중, 경제적 대중 등으로 이 책에서 다루는 대중을 구분했는데 굳이 이런 분류가 필요할까란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서 주목하는 것은 ‘실존적 다수자-적대-폭력’의 계열 속에서 1920년대 일어난 사건이란 형태 속에서 대중의 집합행동 논리를 추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다시 말해서 사건이 일어난 적대적 투쟁의 공간 안에 대중의 행동논리를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 점에서 이러저러한 대중의 분류는 불필요하지 않나 싶다. 이 책에서의 대중은 실존적 적대를 내장한 사건에 연루된 대중들이기에, 일상에서 존재하는 다른 형태의 대중들까지 설명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든다.

두 번째로 자료의 해석을 둘러싼 문제다. 6개의 집단행동의 내적 논리를 사례로 설명하는 데는 대부분 당시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등 자료가 사용됐다. 이 시기를 다루는 자료로 신문 이외에 어떤 자료들이 사용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중행동의 논리를 다루는데 있어서 지식인이나 지역유지 등이 집필한 자료는 대중에 대한 특정한 시선 - 예를 들어 공포, 무질서, 감정의 과잉 등 - 가 내재해 있기에 징후적 독해나 거슬러 읽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1970-80년대의 경우에도 대중들의 움직임이나 일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간지, 잡지 등 공식문서만이 아니라, 대중들이 직접 쓴 자료나 혹은 지배층의 자료를 거슬러 읽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 책의 경우, 사실관계를 둘러싼 문제가 아닌, 대중 집합행동의 내적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 엘리트들이 생산한 자료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궁금하다.

세 번째로, 1920년대를 중심으로 한 대중의 집합행동의 연구가 식민지 연구에서 지니는 위상에 관한 문제다. 이 책에서는 1919년 3.1운동 이후 개인보다 전체가, 다수자적 공동체주의(43쪽) 등 움직임이 대중의 사건적 형태의 집단행동을 촉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1920년대를 중심으로 이 책에서 사건을 다룬 흐름에 공감하면서도, 식민지기의 다른 결절점으로 알려진 1931년, 1937년, 1941년 등 식민지배체제, 제국의 영역이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 개인보다 전체, 공동체를 강조하는 맥락이 지속되면서도 달리 변주되는 양상도 공존하지 않나 싶다. 예를 들어 패전 직후 일부 남겨진 수기 등 자료를 보면 ‘황국소년’으로 1930-40년대 유년기를 기억하며 역시 다른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는 대중들도 존재한다. 이런 시기별 맥락을 유념하며 볼 때 1920년대 대중의 집합행동의 내적 논리를 탐구한 이 연구가 식민지기 연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쉽게 말해서 김진송의 <서울의 땀스홀의 허라라>가 거칠지만 1920년대를 전후로 한 식민지 도시의 문화적 차원의 근대성이란 문제를 본격화했다거나, 윤희동의 식민지의 회색지대가 1920년대와 30년대 시기 식민권력과 대중/주민의 여러 차원의 협상의 영역을

발견해서 기존 식민지 시기 일상적 영역에 대한 흐름과 다른 시선을 제기한 것 등을 참조해 보면 될 것 같다.

네 번째로, 대중의 사건을 통한 집합행동이 식민지 질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문제다. 책을 보며 든 인상은 대부분 사건이 거리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점이다. 식민기 조선만이 아닌, 유럽 등 초기 도시민민의 공동체는 거리의 점유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지배 권력과 갈등을 빚어왔다. 거리에서 난동, 음주, 이상한 춤이나 의례가 대중들에 의해 반복 되는 것은, 이 책의 키워드를 쓰자면 대중의 열광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배권력은 이를 금지하거나 순치시키려고 지속적인 시도를 해왔다. 시간을 둘러싸고 노동시간이나 노동규율의 문제가 핵심적이라면, 공간에 있어서는 거리의 관리가 중요하지 않았나 싶다. 이 책에서, 특히 ‘모방’이란 집단행동의 논리를 다룬 파트에서 다룬 사례들은 사건-불길한 대중의 주변에 운집한 대중들의 “비주체적 욕망”을 다루고 그것을 목도한 식민권력이나 지식인의 ‘공포’를 흥미롭게 다뤘다. 다만 모방을 통한 대중들의 “온건한 욕망”이 다수자로의 전환, 그 과정에서 각종 정보, 루머의 유통 등을 통해 “식민지질서를 교란”(121쪽)했다는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다소 의문이다. 대중들의 사건이 발생한 1920년대 중후반의 맥락에서 기존 질서가 교란되었다면 대중들의 일상의 변화도 동반될수도 있는데 그 구체적인 양상이 뒤에 이어지는 1930년대 초반 식민지기와 연결되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은 것인지 좀 더 설명을 듣고 싶다.

다섯 번째로, 이 책에서 ‘적대’로 상정한 집단행동의 논리가 사례와 어느 정도 조응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적대를 다루는 장에서는 명시적으로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실존적 분노이자 의지/결단이며 상대를 절멸시켜야겠다는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 사례로 형평사와 양민 간의 폭력/적대를 다룬다.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지주-소작인, 식민권력과 갈등 이외에 신분제적 갈등이 공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적대의 사례로 다룬 것이 책에서 전제한 적대인지는 따져볼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형평사원에 대해 수육불매, 고소 등을 취하는 양민들의 행동은 지역공동체내에서 극한 갈등이며, 이미 고소 등 법률적 수단을 사용한 것은 공동체라는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을까? 토론자가 보기에 오히려 적대의 가장 극명한 사례는 마지막 장 ‘폭력’에 등장하는 배화폭동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여섯 번째, 책이 제기하는 핵심적 쟁점은 아니지만 ‘대중과 지식인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다. 이 책에서는 “개념어/신체어”(162쪽)라거나 대중의 실존적 욕망을 “대변”하는 식으로 지식인이 자신의 논리(158쪽)로 대중을 규율화한다든지 혹은 사건을 만드는 것은 신체어(163쪽) 등으로 사건의 내적논리에서 대중의 독자적인 매커니즘을 잘 주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석은 시대를 넘어서 이제 익숙한 설명 방식이다. 구하가 <서벌턴과 봉기>에서 사용한 ‘민중의 자율적 정치영역’이라든지 제임스 스카트의 ‘일상적 저항’이나 로자 룩셈부르크의 자생성의 봉기성이라든지 가깝게는 네그리/하트의 ‘다중’도 대중-지식인에 대한 유사한 설명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토론자역시 살아있는 경험(lived experience)의 중요성이라든지 ‘의식성의 외부 도입설’이 지닌 파국적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 ‘대중-지식인/엘리트’에 대한 이항대립적 설정만큼 대중들이 늘 자율적인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자생성의 굴종”만큼이나, 대중의 자율성에 대한 의미 부여와 이에 동반되는 반엘리트주의라는 ‘자생성의 과신’과 대중의 집합행동을 연결시키는 것도 일면적인 설명일 수 있지 않나 싶다. 물론 이 책도 대중의 이중성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설명이 한축으로 기울어진 것 같다.

일곱 번째, 이 책에서 토론자가 제일 이해하기 쉽지 않은 장이 ‘열광’에서 등장하는 석전-삭전(줄다리기) 사례였다. 이항성의 원칙, 석전-삭전과정에서 평등의 실현 등이 순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상대와의 싸움을 열망”(185쪽), “국가를 향한 전쟁”(194쪽) 그리고 “전사되기의 쾌감”(182쪽) 등은 다소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는 다음 장인 “애도”에서도 순종의 죽음이란 애도 행위 앞에 대중들이 평등(209쪽), 울음에 열광하고 애도에 동참하지 않는 대중에 대한 폭력/적대는 다수자의 힘으로 전환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중들이 열광하는 의례와 죽음에 대한 애도가 대중의 다수자화를 낳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런 적대를 통해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며 공동체의 경계는 어떻게 새롭게 구축되는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듯 싶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 ‘다른 애도’를 살펴보자. 1980년대 분신/열사에 대한 집단적인 애도는 부정의한 국가권력에 대한 적대, 이의 구성원을 민족공동체에서 축출하고,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집단행동이었다. 물론 당시에도 권위주의 국가권력과 이를 지지하는 지식인 가운데는 죽음을 비도덕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몰아가고자 했다. 식민지라는 주권을 외부세력이 장악한 상황이지만, 대중의 집합행동의 내적 논리인 열광과 애도역시 새로운 공동체의 경계를 구축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

끝으로, ‘폭력’ 부분에서 이 책이 제시하는 “대중의 정치”와 관련된 쟁점이다. 예전에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2011년)에서 ‘사건으로서 정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이는 제도/법률적인 관리로서의 정치(police)를 넘어서서, 사건과 직접행동을 통해 대중이 스스로 구성하는 정치의 가능성을 제안했던 것이었다. 이 책에서 “대중의 정치”는 국가의 법질서를 어겨 경찰에 끌려가는 상황이 생긴다면 경찰과도 싸워야 하는, 대중(전사)이 ‘올바른 정치’ - 3자적 타협이나 적과 아에 적용되는 보편적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 법적 규정력을 넘는 자기준칙의 원칙 - 에 대해 가진 자기판단의 논리(278~9쪽)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법/권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를 주장하는 지식인과 구분된다. 이 책의 사례에 대한 해석으로는 설득력이 있지만 이것이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발휘되는 법적 결단의 존재”(288쪽 이하) 등으로 확장되어 논의될 경우 “반대의적 직접행동”(286쪽) 등 자신들이 생각한 정의와 도덕으로 적을 심판한다(287쪽) 등의 논리는 논란을 키우기 쉽다. 이 책의 중심적 논의는 아니지만 제법 긴 분량(288~297쪽)으로 대중정치/대중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는 적대의 폭력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내 새로운 의미를 낳는 생산성이 존재하며, 현재 한국 사회의 높은 정치적 관심도는 적대의 정치가 만든 역동성의 한 효과(296쪽)라고 논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대중정치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당하게 말미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유비되는) 적대로서의 정치와 구분되는 갈등으로서의 정치를 조정자, 행정, 공공서비스로서 정치로 평가하고 있다(293쪽).

최근 전세계적으로 혐오, 적대와 직접행동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또 그 가운데에는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등 마이너리티의 직접행동도 포함되어 있다. 그 점에서 이 책이 제기한 적대가 새로운 의미를 낳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토론자는 1920년대가 아닌 ‘현재’ 정치를 이해하는 방식에서는 이 책과 견해를 달리한다. 쉽게 말해서 정치는, 더 나아가 민주적 공동체는 “갈등을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대중폭력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에서 다룬 1920년대를 전후로 한 사건에서 등장하는 대중폭력과 달리, 2010년대 온라인과 가상공간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폭력은 확산되고 있으며 대중 가운데 일부는 이에 노출되어 있다. 2000년

대 후반 정도까지 온라인 공간을 포함한 적대에 기초한 대중의 주체성과 직접행동의 가능성은 촛불시위 참여자를 둘러싼 다중이나 대중의 역능 등 논의에서 보이듯이 상대적으로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2008년~2009년을 경과하면서 일베 등 온라인 유저들의 극우적 성향이 온라인 외부로 극대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초기엔 5.18이나 정치인에 대한 혐오로 출발했다가 재난 참사 희생자, 소수자, 이주민 등으로 확장되고 헤이트스피취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 등의 직접행동, 그리고 2025년 1월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심스럽지만 대중정치, 대중의 직접행동의 현재성을 다룸에 있어서, 적과 아를 나누는 이원론적 적대성에 기초한 정치의 생산성보다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이 2010년대 후반 이후 정세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